

‘항미원조 서사’를 통해 어떻게 중국과 대화할 것인가?

송가배*

[서평] 한담(2025),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
서울: 나뭇잎스, 420쪽

1. 당대 중국을 이해하는 문화적 창구, ‘항미원조 서사’

한국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서서 ‘항미원조’(抗美援朝), 즉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북한)을 원조하는 전쟁을 하였다. 그것은 중국의 국방전쟁이자 반제국주의 전쟁으로서,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국제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제였다. 포스트 혁명 시기 잠시 잊혀졌던 이 전쟁은 근래 미중(美中)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맞서 내부 단결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대중매체에서 활발히 소환되고 있다. 일례로 <나의 전쟁>(2016), <장진호> 시리즈(2021~2022), <저격수>(2022) 등이 상영되었으며, 단순히 선전 영화나 국뽕 영화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흥행에도 성공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종종 소개되었기 때문에 국내 독서대중도 ‘항미원조’라는 단어에 예전만큼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호응하여 항미원조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서사물을 통해 재생산하였는지, 중국 측의 경험에 관한 굵직한 연구 단행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출간된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백지운 저)은 마오쩌둥 시기부터 포스트 마오 시기까지 중국인의 입장에서 항미원조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그 집단기억의 생성과 망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각, 재소환의 역사를 상세히 서술하였다.¹ 또한 공식적 서사 밖에서 중국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전쟁의 경험을 재구성한 연구서 『중국 시민의 한국전쟁: 해외파병을 둘러싼 문제들』이 번역되는 등 점차 연구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²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한담 교수의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2025) 역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국 연구’이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1949년 신중국이 탄생한 이래 당대 중국의 주요한 국가 서사, 그리고 그에 보조를 맞춘 인민의 정체성 형성, 이들의 세계 상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함에 있어 항미원조 전쟁과 관련한 서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마오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항미원조 서사의 연속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의 자기 인식과 세계 상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기제로 구성되었는지 상세히 밝혀냈다. 그렇다면 왜 당대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 ‘항미원조’가 중요하며, 왜 그 경로로서 ‘서사’ 텍스트를 봐야 하는가?

먼저 마오 시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국가 서사에서 항미원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부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건국 직후 ‘강한 중국’과 ‘혁명 중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지향했는데, 항미원조 서사는 두 개의 사명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국가 서사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항미원조 전쟁이 끝난 1958년³ 이후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도 계속 마오

1 백지운(2023),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2 천자오빈(2025), 박철현 옮김, 『중국 시민의 한국전쟁: 해외파병을 둘러싼 문제들』, 뽕간 소금.

3 이 책에서는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항미원조전쟁’은 ‘한국전쟁’의 동의어가 아니다. ‘항미원조전쟁’은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참전한 것을 기점으로 1958년 10월 지원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한 때까지 8년 동안 진행된 전쟁을 가리키며, 이 시기 전쟁을 내용으로 창작된 작품을 ‘항미원조 문학’이라 한다. 한편 ‘조선전쟁’(朝鮮戰爭)(즉 우리말의 한국전쟁)은 냉전 속에서 발생한 두 진영 간의 국제전쟁이며, ‘항미원조 전쟁’은 신중국이 자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가한 제한적인 자위 전쟁으로 구분된다. 趙志軍(2024), 「反抗遺忘: 抗美援朝題材文學經典化研究」, 『文藝理論與批

의 세계 혁명에 동력을 제공하고 혁명적 자아정체성을 강화하는 국가 서사로 기능하였다.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자아 형상은 “신중국 인민의 모범적 모델”로서, “달라진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다(98쪽).⁴ 즉 중국인은 인민지원군의 형상이 대표하는 ‘사회주의 신인(新人)’의 형상에 자신을 동일시해야 했다. 1950년대는 공산당에 의해 해방된, 그러나 여전히 당의 지도에 따라 계급적으로 각성해 나가는 농민 출신 병사, 1960년대 평화 시기에는 혁명후계자로서 성숙한 프롤레타리아트 전사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인민’ 형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국인은 ‘비국민’으로 배제됨으로써 사회주의 개조와 국민 만들기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2부에서 다루는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에는 항미원조의 기억이 미중 밀월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냉대받기도 하였으나, 근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다시 활발히 소환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으로 구현된 서사는 ‘대미항전’(對美抗戰)의 목표 아래 사회를 결집하고 저항적 내셔널리즘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중국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자기 인식을 이해할 단서 역시 항미원조 서사에 있다.

그렇다면 왜 문학, 예술의 ‘대중 서사’인가? 무력 충돌의 전쟁 속에서 문학과 예술은 어떠한 위치를 점했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을까? 한 복리뷰의 자극적인 제목에 따르면 “민족의 비극 6·25”는 중국의 “국가·인민·정체성 확립에 악용됐다”⁵고 한다. 하지만 항미원조 전쟁을 중국 내 통치에 ‘이용’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갖 세워진 취약한 국가의 정부로서 참전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전쟁에 자원과 국민

評』(03), p. 119.

4 이하 본문에서 인용하는 한담(2025),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나름북스)의 출처는 내주로 표기한다.

5 장동석(2025), 「[복리뷰] 민족의 비극 6·25, 中 국가·인민·정체성 확립에 악용됐다」, 『문화일보』(9. 5.), <https://www.munhwa.com/article/11530888>(검색일: 2026. 2. 9.). 리뷰의 내용은 상당히 차분하고 중립적이다. 제목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뉘시’로 보인다.

을 동원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다.⁶ 국가는 “왜 남의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113쪽)에 대해 답해야 했다. 게다가 충구를 겨누어야 하는 대상은 얼마 전까지 우방으로서 함께 ‘일본놈’(日本鬼子)을 물리쳤던 미국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명적 영웅주의, 애국주의, 국제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항미원조의 공식 서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난해한 이데올로기가 당시 항미원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민중의 내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매개체가 필요했다. 즉 “국가 선전을 일상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민중의 정서적 공감과 동일화를 유도하는 정감화된 정치선전”(125쪽)으로서 대중적인 서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저자는 국가의 기념 행사, 지도자의 담화, 『인민일보』 기사와 같은 공적 서사 자료만큼이나 대중 서사의 중요성을 다른 지면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중국의 인구 대다수가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농민이었기 때문이다.⁷

저자는 대중 서사물 가운데 문학과 영화, 연극을 텍스트로 하여 항미원조라는 상상의 전쟁을 중국 인민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관방의 이념을 어떠한 논리와 감정의 구조로 내면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내용, 기제를 매우 상세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항미원조의 두 축을 이루는 애국주의(국방전쟁)와 국제주의(사회주의 혁명)는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정으로 전환되었다. 먼저 ‘항미’와 관련, ‘반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로 형상화되었다. 즉 청왕조 말기 미국이 강요한 치외법권이나 경제적 이익의 강탈, 해방전쟁 시기 ‘반동’ 세력 장제스(蔣介石)를 지원한 역사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미국이 일

6 참전 결정의 국내의 요인, 과정, 그리고 그것이 능동적인 결정이었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존재한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중국 역사학자 선즈화(沈志華)는 결정의 주체와 동기 모두가 다중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李雅興·閔雪(2020), 「七十年來抗美援朝研究述評」, 『黨史研究與教學』(06), pp. 80-81.

7 한담(2023),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항미원조』 서평」, 『동북아역사논총』 81, p. 567.

본을 좇아 동북 지역을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민중이 지니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미국으로 전이시켰다. 이 점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냉전 구조는 단순히 외부의 진영 논리가 덧씌워진 것이 아니라 “반제국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인식과 감정의 기반 위에서 형성”(70쪽)된 것이었다.

후자인 ‘원조’(援朝)의 국제주의는 보다 까다로운 것이었다. ‘항미’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쉽게 내면화될 수 있었지만, ‘원조’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동북 지역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고려봉자’(高麗棒子)라는 멸칭으로 불렸다. 일부가 ‘소일본인’(小日本人)으로서 특권을 누리기도 했고, 헤로인을 팔고 중국인을 업신여긴 행태가 이러한 악감정을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에는 저항하지만 조선은 돕지 않겠다”(抗美援朝)(70쪽)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다. 이러한 민족 갈등의 분노에 더해, 역사적으로 중국이 조선을 속국으로 여겨온 데서 비롯된 멸시감 역시 작용하였다.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방에서는 중조(中朝) 우애를 선양하는 자료를 대량으로 출간, 조선인 가운데 사회주의 조선은 항일전쟁, 해방전쟁의 동지로 도와야 할 대상이며, ‘고려봉자’ 남한군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난해한 국제주의 이념 역시 “공산주의 맥락에서의 가장주의”(76쪽)로 구체화되었다. 조선인을 연약하고 고통받는 여성으로 형상화하고, 인민지원군은 그들을 구원하는 가부장 남성으로 등장시키는 서사 구조이다. 이렇게 인민대중이 갖춰야 할 국제주의 정신은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 질서 및 위계 구조”와 맞물리며 이질감 없이 수용되었다(129쪽). 저자가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 웨이웨이(魏巍), 양췌(陽朔)의 전지 보고문학과 소설은 인민이 상상된 전쟁 속에서 항미원조의 혁명적 영웅주의, 애국주의, 국제주의를 내면화하고, 새로운 중국 인민으로 탄생하는 현장이었다.

2. 중국당대문학 연구사에서의 위치

이상으로 항미원조 서사를 통해 어떠한 중국(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하였다면, 이제 이 연구가 중국당대문학 연구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질문은 중문학도로서 필자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의 1부는 저자가 베이징대학 중문과 박사학위논문[『신중국의 자아 인식과 세계 상상: 1950~1970년대 항미원조 문예를 중심으로』(新中國的自我認知與世界想象: 以1950~1970年代抗美援朝文藝爲中心), 2018]를 번역한 것이며, 2부는 귀국 후 문화적 징후로서 영화 텍스트를 분석한 3편의 후속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속연구의 경우, 2020년 참전 70주년을 전후하여 관방과 문화계에서 관련 담화와 행사, 영화, 드라마가 쏟아져 나온 항미원조 재부흥기를 소개하여 한국 사회와 학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학문의 효용성과 시의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1부이다. 마오 시기의 문예는 저자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당대 문학 및 문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영역이다(15쪽). 그 주요한 이유는 강한 정치성이 문학의 자율성을 압도했다는, 1980년대 중국 신시기의 ‘계몽주의’적 시각이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⁸ 그렇다면 왜 이 시기였을까?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 유학생이므로 연구하기 쉽고 또 유리한 ‘한국 체재 문학’을 택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저자가 논문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치열하게 비판하고 개입해 나가는 노력을 고려하면 전혀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이중으로 주변화된 외국전장 글쓰기를 통해 중국 당대문학의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작업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다중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과제에서 저자는 항미원조 서사의 내용 자체가 한국에 의미 있다는 주장을 넘어, 신중국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서 핵심적인 의제를 다루고

8 1980년대 ‘계몽주의’ 시각에 대한 비판은 張均(2013), 『“十七年”文學報刊研究的方法論反思』, 『文藝研究』(07) 참고. 다만 이 글에서 1980년대의 문학연구 방법과 담론을 비판하는 목적은, ‘17년시기’ 문학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에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답을 제시하였다. 바로 신중국 초 과도기에서 문예의 규범화, 작가의 자기 개조 문제이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항전 시기 중국의 문예는 크게 국민당 통치하의 대후방(국통구), 중공의 항일근거지(해방구), 일본군 및 협력정권의 윤함구(淪陷區)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국공내전에서 중공이 승리하면서 해방구 옌안(延安)의 문예가 건국 후 ‘국민문학’으로서 인민문학의 모범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국 사회주의 문예의 역사를 마오쩌둥의 「옌안문예좌담회에서 강화」가 발표된 1942년을 기점으로 1976년까지 서술하는 것이다.⁹ 저자는 바로 1942년 옌안에서 시작된 신중국 인민문학의 형성 과정에 항미원조 서사가 있었다고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옌안문예의 핵심 원칙, 예를 들어 혁명의 승리를 위해 문학 및 예술과 군사적 투쟁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문무(文武) 양대 전선’ 원칙은 항미원조 문예를 통해 당대의 문단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또한 옌안문예에 익숙하거나 옌안 경험이 있는 작가가 당대의 주류 작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신중국 인민문예의 건설은 주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홍색경전’(紅色經典), 즉 토지개혁이나 공사화(公社化) 문학을 토대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 건국 초 공화국 문학을 지탱한 것은 국내건설 외에도 항미원조의 외국전장 문예라는 축이었다. 저자는 그동안 잊혀진 후자를 통해 건국 후 인민문예의 규범이 어떻게 확립 및 보급되었으며, ‘구중국’에서 온 작가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예 규범을 학습하고 창작을 연습했는지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작가 역시 신중국이 요구하는 인민이 되기 위해 자기 인식과 세계관을 개조해나가야 했다. 1부에서 분석한 세 명의 작가 가운데 웨이웨이와 양쉬는 항미원조 서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신중국에 안착한 경우였다. 하지

9 대표적인 연구로 李楊(1993), 『抗爭宿命之路: “社會主義現實主義”(1942-1976)研究』,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참고. 한편 중공과 해방구 중심의 문학사 서술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최원준(2025), 「중국현대문학사 분기 문제 재검토: 중일전쟁 시기 대후방 문학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77 참고.

만 루링(路翎)은 연안문에 이전의 ‘오사’(五四) 신문학 전통의 영향 아래 강한 개인주의 정체성을 지녔고, 신시대의 계급 정체성에 융합해내지 못해 결국 이단으로 박해받고 말았다.

한편 이 연구의 근간으로서 문제의식과 방법론은 1부에 있는데, 그것은 중국에서 중국인을 청자로, 학위논문이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학문 생산의 규범과 체제 안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연구자로서 저자는 어떠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기존의 학술장에 개입해 들어갔을까? 그중에서 두드러지는 지점은 ‘아시아 냉전’의 비교연구 시야이다. 저자는 냉전의 결정성이 중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 고찰하면서, 유럽중심적인 냉전 연구와 거리를 두고 중국을 출발점으로 하는 중국인의 냉전사를 쓰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야가 있었기에, 중문학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문학사 분기 개념인 ‘17년시기 문학’의 시간적·개념적 한계를 넘어, 마오 치하의 약 30여 년 시기를 문학, 영화, 양판회라는 여러 서사 유형을 넘나들며 통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중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항미원조 서사를 당대 중국의 자기 인식과 세계 상상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읽는다. 그런데 동시에 항미원조 서사는 지금 중국이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발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2부에서 다룬 화제가 되는 항미원조 블록버스터들은, 영화라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문화 상품을 통해 세계로 발신되는 일종의 성명으로 읽힌다. 이 점에서 필자는 연구자의 역할이, 저자의 말대로 이 영화들 뒤에 중국 당국이 중미 패권 다툼 속에서 대중적 내셔널리즘을 이용해 “대중의 힘을 결집하고, 국내에 누적된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외부로 적으로 전가하여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15쪽)이 있다고 비판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한 걸

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저자가 나아간 지점은 바로 항미원조 서사가 전쟁의 집단기억을 바탕으로 각 시대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인)을 구성해 온 역사를 밝힌 데 있다. 반면 필자는 지금의 중국은 무엇이며, 어떠한 ‘중국인 됨’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본격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저자가 영화 〈나의 전쟁〉 논란에 대한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과거와 달리 항미원조를 어떻게 기억하고 서사화할 것인가에 대해 관변과 대중의 간극, 그리고 나아가 대중 내에서도 이견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348쪽), 지면상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짧게나마 중국 관방이 어떠한 메시지를 발신하는지 살펴보면, 현재 항미원조 제재의 신주류 영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중국의 ‘대국’(大國) 지위를 뒷받침하는 정치적·도덕적 담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미원조 전쟁이 항일전쟁, 해방전쟁(즉 국공내전)과 함께 ‘건국전쟁’[立國戰爭]으로서, 중국의 대국화를 실현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 100여 년간 제국주의의 침략 아래 민족적 치욕을 겪었으나, 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독립과 해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해방전쟁을 통해서는 미(美)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한 장제스의 국민당 일당독재를 타도함으로써 반(半)식민, 반(半)봉건 상태에서부터 중국을 진정한 주권 독립 국가이자 인민이 해방한 국가가 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항미원조 전쟁을 통해서는 세계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지닌, 현대적 의미의 진정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 차례의 건국전쟁을 주도한 것은 모두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이었던다는 주장이다.¹⁰ 이처럼 ‘대국’의 역사적 근원을 강조하는 서사는, 경제 강국으로 굴기한 중국이 한 발 더 나아가 규범적, 도덕적 담론을 만들고, 이로써 국제질서를 바

10 이상의 ‘대국’ 논의는 王宜秋(2013), 「毛澤東與中國大國地位的確立：從抗日戰爭，解放戰爭，抗美援朝談起」, 『紅旗文稿』(24) 참고.

꿀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발전시키려는 기획과 맞닿아 있다.¹¹ <나의 전쟁>에 자막으로 삽입된 구호가 ‘항미원조 보가위국’에서 ‘보가위국 세계평화’로 변한 것 역시, 중국이 세계를 구한 정의로운 리더임을 표방하는 것으로 읽힌다. 항일전쟁 영화도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데, 항전이 단지 일본에 맞서 싸운 국민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파시스트 세력으로부터 세계 인민을 구한 정의로운 세계 전쟁이었다고 강조한다.¹² 요컨대 항미원조 서사의 변화는 단순히 반미 정서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맥락에서 현재 중국 정부가 ‘백 년의 대변국’을 강조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담론을 주도하고, 그 지도하에 학계와 문화계에서 적극적으로 학술 연구와 다양한 문화 형식으로 적극 호응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제 ‘세계평화’의 기치하에 중국은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가? 그것은 과거 마오의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과는 또 다른 국제적 지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항미원조 전쟁 영화는 단순히 국내 정치용에 그치지 않으며, 외국인인 우리 역시 잠재적인 청자로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는 중국에 대해 낯설고 심지어 선입견을 가진 해외 대중을 향해, 재미와 감동이라는 심미적 과정을 통해 파고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갈수록 공세적으로 국경을 넘는 항미원조 서사에 대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수신하고 해독해야 할까? 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항미원조/한국전쟁을 둘러싼 한중 간의 유예되어 왔던 질문과 갈등의 씨앗이 표면화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담 교수의 연구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11 중국 정부는 또 다른 건국전쟁인 항일전쟁의 기억과 유산을 국제정치의 담론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Rana Mitter(2020), *China's Good War: How World War II Is Shaping a New Nation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Introduction, pp. 1~26 참고.

12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송가배(2025), 「당대 중국의 항전담론은 어디에 와 있는가?: 논쟁작 <八百>을 단서로」, 『중국어문학지』 92.

참고문헌

- 한담(2025),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 나뭇잎스.
- 백지운(2023),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 李楊(1993), 『抗爭宿命之路: “社會主義現實主義”(1942-1976)研究』,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 Rana Mitter (2020), *China's Good War: How World War II Is Shaping a New Nation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한담(2023),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항미원조』 서평」, 『동북아역사논총』 81.
- 천자오빈(2025), 박철현 옮김, 『중국 시민의 한국전쟁: 해외파병을 둘러싼 문제들』, 빨간소금.
- 최원준(2025), 「중국현대문학사 분기 문제 재검토: 중일전쟁 시기 대후방 문학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77.
- 송가배(2025), 「당대 중국의 항전담론은 어디에 와 있는가?: 논쟁작 〈八百〉을 단서로」, 『중국어문학지』 92.
- 韓潭(2018), 『新中國的自我認知與世界想象: 以1950-1970年代抗美援朝文藝爲中心』,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 趙志軍(2024), 「反抗遺忘: 抗美援朝題材文學經典化研究」, 『文藝理論與批評』 (03).
- 王宜秋(2013), 「毛澤東與中國大國地位的確立: 從抗日戰爭, 解放戰爭, 抗美援朝談起」, 『紅旗文稿』 (24).
- 李雅興, 閔雪(2020), 「七十年來抗美援朝研究述評」, 『黨史研究與教學』 (06).
- 張均(2013), 「“十七年”文學報刊研究的方法論反思」, 『文藝研究』 (07).
- 장동석(2025), 「[북리뷰] 민족의 비극 6·25, 中 국가·인민·정체성 확립에 악용됐다」, 『문화일보』(9. 5.), <https://www.munhwa.com/article/11530888>(검색일: 2026. 2. 9.)

